FX Market Daily

2024-09-04

전일동향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341.4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00원 상승한 1,341.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0원 하락한 1,338.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미국 장 휴장과 양방향 수급으로 1,340원 부근에서 횡보했다. 이후 위안화 약세에 동조해 환율은 1,340원을 상승 돌파했다. 국내증시 외인 매도세와 커스터디 매수세 유입으로 추가 상승했으나 네고물량 출회로 상승세가 제한되며, 1,341.4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7.9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8.00	1346.00	1337.50	1341.40	1341.00
엔화	910.64	923.22	908.83	921.90	-
유로화	1481.47	1491.51	1477.60	1481.25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25	-7.39	-14.06	-24.03
결제환율(수입)	-1.7	-6.5	-12.29	-20.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리스크 오프 영향에.. 1,34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41.40) 대비 같은 수준인 1,338.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영향에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는 전월비 0.4p 상승해 47.2를 기록했으나 예상치(47.5)를 하회했다. 고용지수는 46.0으로 개선됐으나 수축 국면이 지속됐다. 이외에 재고 증가, 수주잔고 감소 등 위축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산됐다. 이에 미 국채 2년물은 5.80bp, 10년물은 7.80bp 하락해 각각 3.867%와 3.833%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기술주 급락에 하락 마감했다. 한편 엔화는 우에다 BOJ 총재의 반복적인 매파적 발언의 영향에 강세를 보였다. 위험선호 위축에 따른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 상승으로 금일 환율은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약세 동조화 및 역내외 저가매수 수요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업체 고점매도 경계 등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9.00 ~ 1347.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871.1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보합
	■ 美 다우지수 : 40936.93, -626.15p(-1.5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85 억달러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